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 :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in Taking Counseling Course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에 상담수강경험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 313명이며,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관계에서 상담수강경험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상담수강경험은 우호적 성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부적으로 반전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외향적 성향이 공감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만드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학습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감성지능과는 상담수강경험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향적 성향일 경우에만 상담수강경험이 공감적 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현재 상담교육은 외향적 사람에게 잘 맞는 커리큘럼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오히려 우호적 성향인 경우 상담수강경험이 공감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호적 성향 자체가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이거나 현재 커리큘럼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성격별 소그룹 수업이나 각각의 성향에 맞는 수업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커리큘럼의 다양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class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undergraduat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As a result of verification, having course exper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empathic abilities, reversing agreeableness from positive into negative. It also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mpathic concern, making that of an extravert positively significant. The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did not show a moderating effect on emotional intelligence that can be improved by learning. This demonstrates that education in counseling as carried out in universities is inappropriate, and course experience enhances empathic concern only when the student tends to be an extrovert.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counseling system is a curriculum suitable for extroverted people. Also, when students have a friendly, amicable tendency, the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lowered empathic ability. This means that an amicable tendency is not a variable influencing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at the present curriculum needs to be diversified. Although it is hard to provide a curriculum customized for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mphasizing diversity in the curriculum to allow students to choose a small-group class or the lecture method based on personality or individual tendency.

Keywords : Undergraduates, Big5,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Counseling Course-Taking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

email: mfelim@daum.net

Received November 22,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December 2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성격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다[1]. 학문적으로는 비교적 오랫동안 일관되게 개인의 행동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자질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성격 특질이론가인 Allport[3]는 성격이란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신체적·정신적 체계로 개개의 역동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성격은 미래의 목표 혹은 현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성격을 분류하여 개인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Jung[4]의 심리유형이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었으나, 대표적으로 Allport, Cattell, Eysenck의 개인 특성 이론을 토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된 Big5 성격 유형, Myers-Briggs가 정리한 MBTI 유형, Marston에 의해 제시된 DISC 행동유형 등이 있다. 이 중, Big5 성격유형은 Goldberg[5]가 성격 유형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이후 Costa와 McCrae[6]가 6년간의 종단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5개 요인은 개인에 따른 차이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최근까지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7].

특히 성격과 행동 간 일관성과 함께 유의한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지면서 성격심리학자들은 성격의 특성 구성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6,8,9]. 지금까지 성격특성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다양한 인간의 성격을 대부분 5가지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8,10]과 문화와 언어 등 다양성의 경계를 넘어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특성이란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나타난다[6,11,12]. 이후 Goldberg[5]는 자신의 연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의 5요인을 찾아냈고 이를 ‘Big Five’라 명하게 된다. 여기서 ‘Big’이란 5요인 안에 많은 특질이 들어가 있음을 뜻한다. 안창규와 채준호[13]도 개정된 성격목록인 NEO-PI-R의 한국 표준화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게도 외국인과의 마찬가지로 일관적인 성격 특성이 나타남을 밝혔다.

감성지능의 개념은 Gardner[14]의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에서 처

음 시작되었고 이후 Salovey & Mayer[15]는 인간 감성에 지능을 적용하여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즉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시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지능의 하위요소 중 하나로 감성지능을 말하고 있으며 ‘감정을 지각, 인식, 표현하는 능력, 감정을 생성(generate), 혹은 이를 이용한 사고 촉진(assist)하는 능력, 감정 이해(understand)능력, 감정발달(emotional growth)과 지적발달(intellectual growth) 촉진을 위한 감정조절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16,17].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정조절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는 자신 혹은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감성활용은 감성에 관한 정보를 경험에서부터 이끌어내어 활용하는 능력, 감정조절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거나 스트레스 자체를 낮추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공감은 인간중심이론의 Rogers[18]가 효과적 상담을 위한 기본 요인으로 공감을 강조한 이래 심리학과 상담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Rogers[19]는 공감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호작용 중 어떤 특수한 순간에 내담자가 경험한 느낌, 느껴진 의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성욱[20]은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능력인 공감능력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생각하고 느끼므로 인해 내담자 스스로 이해받았다는 느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감능력은 크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학자에 따라서 공감능력의 구성요인인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21,22].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 수용과 마음 추론능력과 같은 인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른 정서 반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반적 정서수준에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성격특성, 즉,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따라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다[24,25]. 인간은 정신을 이성적과 감성적으로 나누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성적이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감성적이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통제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내, 지구력, 충동조절력, 만족지연, 용기, 절제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기 조절력이 좋은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감성지능은 학자에 따른 정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능력과 성격 특성이 혼합된 시각(mixed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과 능력 혹은 정보처리 시각(ability or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으로 나뉜다[26]. 능력과 성격특성의 혼합관점은 감성지능을 성격, 동기부여, 감성적 특성과 연관하여 이해하며[27], 정보처리관점은 감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능력, 감정 사용으로 사고를 촉진하는 능력, 감정 이해능력, 감정조절능력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을 성격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능력 혹은 정보처리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다른 지능처럼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학습하거나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28,29,30]. 또한 국내[20,31,32]와 국외[33]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공감적, 인지적, 헌신적,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인지지향적임과 동시에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과 쉽게 동일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32] 공감능력은 감성지능과 상관관계가 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알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29,34], 상담학과 이외의 전공자들도 상담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과 관계를 살펴보고 상담수강경험에 따라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한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상담 관련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은 조절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은 조절역할을 하는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2명(29.4%), 여자가 221명(70.6%)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205명(65.5%), 글로벌비즈니스대학 39명(12.5%), 바이오생태보건대학 41명(13.1%), 과학기술융합대학 22명(7.0%), 디자인 예술대학 6명(1.9%)으로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인문계열로, 바이오생태보건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으며, 모수가 부족한 디자인 예술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담수강 경험여부는 수강 142명(45.4%), 비수강 171명(54.6%)으로 나타났다. 상담관련 교과목으로는 다문화 상담과 실제, 가족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 심리 및 상담 등이 있었으며, 1~2학년 학생에 비해 3~4학년 학생들의 상담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절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성격특성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의 성격특성 측정도구인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35]를 전유정[17]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맞게 문항을 축소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개 문항 중,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를 저해하는 10개 문항을 제외하여 40개 문항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KMO 측도는 .802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고, 예민한 성향 .88, 외향적 성향 .88, 창의적 성향 .75, 우호적 성향 .80, 책임행동적 성향 .79로 나타났다.

2.2.2 감성지능

Wong & Law[36]의 도구를 번안 수정한 전유정·이수범[37]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 활용으로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Likert형 7점 척도였으나, 공감능력과 일치시키기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6문항 중에서 감성지능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86, 자기감성이해 .84, 타인감성이해 .86, 감성활용 .85, 감성조절 .85로 나타났다.

2.2.3 공감능력

공감능력척도는 박성희[21]가 번역한 Davis[38]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전체 28문항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4개이고,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 수는 각각 7문항이다.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이고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차원의 공감영역,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의 공감영역을 측정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의미한다. 총28문항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2개 항목을 제외하고 총 26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고, 관점 취하기 .74, 상상하기 .80, 공감적 관심 .81, 개인적 고통 .7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상담 관련 교육수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은 감성지능, 공감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에는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에는 개인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외향성은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방성은 감성조절을 제외한 감성지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개인적 고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친화성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고통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실성은 공감능력 전체와 상상하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2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격특성 중, Table 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창의적 성향과 책임행동적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성격특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

Table 1.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Neuroticism	1														
2. Extraversion	.113*	1													
3. Openness to experience	-.031	.355***	1												
4. Agreeableness	.071	.354***	.020	1											
5. Conscientiousness	.061	.241***	.140*	.300***	1										
6. Emotional intelligence	.297***	.444***	.287***	.441***	.406***	1									
7. Self emotion appraisal	.173**	.409***	.276***	.272***	.237***	.679***	1								
8. Other's emotion appraisal	-.071	.215**	.141*	.424***	.282***	.651***	.376***	1							
9. Use of emotion	.177**	.414***	.298***	.252***	.374***	.732***	.390***	.237***	1						
10. Regulation of emotion	.496***	.203**	.088	.275***	.213**	.685***	.246***	.234***	.316***	1					
11. Empathic ability	-.203**	.160**	.071	.469***	.040	.262***	.184**	.386***	.104	.075	1				
12. Perspective taking	.062	.297***	.237***	.475***	.204***	.549***	.341***	.417***	.344***	.408***	.605***	1			
13. Fantasy	-.085	.164**	.117*	.229**	-.074	.139*	.134*	.248***	.056	-.024	.701**	.264**	1		
14. Empathic concern	-.092	.253***	.037	.538***	.268***	.364***	.253***	.406***	.213***	.152***	.773***	.446***	.354***	1	
15. Personal distress	-.390***	-.270***	-.170**	.006	-.282***	-.314***	-.217***	-.038	-.302***	-.286***	.542***	-.016	.210**	.187***	1

수인 상담 수강 경험을 수강 여부에 따라 1과 0으로 더미변환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성격특성과 상담 수강 경험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한편 모든 회귀 모형의 VIF 지수는 10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3.3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를 감성지능,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로 설정한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p=.80$), 성격특성과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3.4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의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3.4.1 성격특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상담 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Table 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독립변수인 예민한 성향, 외향적 성향, 우호적 성향을 투입한 Model 1에서 예민한 성향($\beta=-.239$, $p<.001$), 우호적 성향($\beta=.480$, $p<.001$)은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39.382$, $p<.001$).

Model 3에서 성격특성과 상담 수강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전체 30.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18.880$, $p<.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p>.05$), 유의수준 10% 기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1$), Model 3에서 우호적 성향과 상담 관련 강의 수강의 상호작용항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호적 성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 관련 강의 수강은 공감능력에 대한 우호적 성향의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Course Taking on Big5 Characteristic and Empathic Ability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Neuroticism	-.136	-.239***	-.132	-.232***	-.136	-.240***
Extraversion	.010	.017	.003	.006	-.020	-.035
Agreeableness	.346	.480***	.345	.479***	.451	.625***
Counseling course taking			.081	.095	.082	.097*
Neuroticism*						
Counseling course taking					.017	.022
Extraversion*						
Counseling course taking					.030	.038
Agreeableness*						
Counseling course taking					-.199	-.197**
$R^2(adj R^2)$.277(.270)		.285(.276)		.302(.286)	
ΔR^2	.277		.009		.017	
F	39.382***		30.758***		18.880***	
p-value	<.001		.052		.06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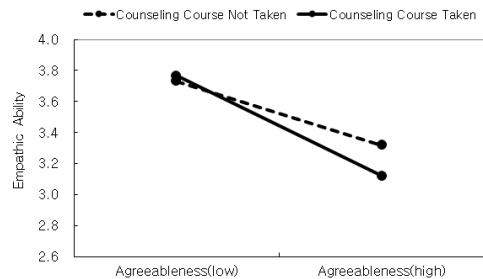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Course Taking on Big5 Characteristic and Empathic Ability

3.4.2 성격특성과 공감적 관심의 관계에서 상담 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Table 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독립변수인 외향적 성향, 우호적 성향, 책임행동적 성향을 투입한 Model 1에서 우호적 성향($\beta=.485$, $p<.001$), 책임행동적 성향($\beta=.109$, $p<.05$)은 공감적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45.013$, $p<.001$).

Model 3에서 성격특성과 상담 수강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전체 33.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1.881$, $p<.001$).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p > .05$), 유의수준 10% 기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 < .10$), Model 3에서 외향적 성향과 상담 관련 강의 수강의 상호작용항이 공감적 관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외향적 성향이 공감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 관련 강의 수강은 공감적 관심에 대한 외향적 성향의 영향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만드는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Course Taking on Big5 Characteristic and Agreeableness

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Extraversion	.050	.055	.036	.040	-.075	-.083
Agreeableness	.546	.485***	.544	.483***	.619	.551***
Conscientiousness	.111	.109*	.114	.112*	.026	.026
Counseling course taking			.169	.127**	.169	.128**
Extraversion* Counseling course taking					.184	.148*
Agreeableness* Counseling course taking					-.101	-.064
Conscientiousness* Counseling course taking					.138	.098
$R^2(Adj R^2)$.304(.297)		.320(.311)		.334(.319)	
ΔR^2	.304		.016		.014	
F	45.013***		36.253***		21.881***	
p-value	<.001		.008		.09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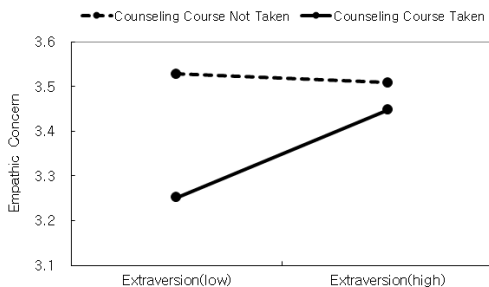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Counseling Course Taking on Big5 Characteristic and Agreeableness

기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개인적 고통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개괄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상담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은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30], 성격에 따라 감성지능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상담 교육 자체는 공감능력과 공감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격특성에 따른 상담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는 우호적 성향일수록 상담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적 성향일수록 상담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 공감적 관심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담 관련 교육은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론 위주의 현행 커리큘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습 위주의 방법이 병행된다면[39,40,41,42,43]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 관련 강의를 받으면 공감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우호적 성향은 타인을 신뢰하고 순응하며 이타적인 정도를 뜻한다. 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성향이지만, 우호적 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44]. 우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교육이 공감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호적인 성향 자체가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일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재의 커리큘럼이 우호적 성향의 사람에게 알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관련 교육을 통해 공감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외향적 성향은 타인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정도를 뜻한다. 외향적 성향이 높은 이들이 상담 관련 교육을 받으면 타인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담 관련 교육 커리큘럼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성실성이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성실성이 강한 사람은 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격에 따라 공감능력에 대한 상담 수강 여부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는 사실은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나[45] 모든 개개인에게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대안으로 소그룹 교육이 제시되기도 하며,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성격별로 소그룹을 지정한 뒤,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던 교육을 통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우호적 성향인 경우에는 현재의 상담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들에게는 새로운 상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Website]. (2019.9.21.). Retri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4%B1%EA%B2%A9>
- [2] You-Sung Back,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Employee Exchang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Big 5 character-types",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33, no. 5, pp. 155-170, 2014. DOI: <http://doi.org/10.29214/damis.2014.33.2.009>
- [3] Allport, Gordon W.,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inehart & Winston, Newyork, pp. 37, 1961.
- [4] Jung, C. G., "Psychological types (HG Baynes, Trans.), Kegan Paul, London, 1923.
- [5] Goldberg, Lewis R.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no. 1, pp. 141-165, 1981.
- [6] Costa, Paul T., and Robert R. MacCra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1992.
- [7] Mi-Sun Park,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Performance. - Focused on Hotel Employees in Seoul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2011.
- [8] Digman, J. M.,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1, no. 1, pp. 417-440, 1990.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41.020190.002221>
- [9] McCrae, R. R., John, O. P.,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vol. 60, no. 2, pp. 175-215, 1992.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2.tb00970.x>
- [10] Smith, D. B., Hanges, P. J., Dickson, M. W., "Personnel selection and the five-factor model: Reexamining the effects of applicant's frame of refer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6, no. 2, pp. 304, 2001.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86.2.304>
- [11] Church, A. T., "Personality measurement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vol. 69, no. 6, pp. 979-1006, 2001. DOI: <https://doi.org/10.1111/1467-6494.696172>
- [12] Katigbak, M. S., Church, A. T., Guanzon-Lapeña, M. A., Carlotia, A. J., del Pilar, G. H., "Are indigenous personality dimensions culture specific? Philippine inventories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1, pp. 89, 2002.
- [13] Chang-Kyu Ahn, Joon-Ho Cha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1, pp. 443-472, 1997.
- [14] GARDNER, Howard.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Hachette Uk, 2011.
- [15] Salovey, P.,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16]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edited by Salovey and Sluyter, New York: BasicBooks, pp. 3-31, 1997.
- [17] Yu Jung Jennifer, Je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f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Management on Coping Strategy and Self-Efficacy - Mediated by Emotional Intelligenc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2012.
- [18] Rogers, C. R., "Client-centered therapy".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51.
- [19] Rogers, C. R.,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 Point of View of Psychotherapy". Alemar., 1961.
- [20] Sung-Wook Joo, "The effects of counselor's state anxiety and anxiety management styles on counselor's empathic attitude perceived by cl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Graduate School, 1998.
- [21]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5, no. 5, pp. 143-166, 1996.
- [22] Cox, C. L., Uddin, L. Q., Di Martino, A., Castellanos, F. X., Milham, M. P., Kelly, C., "The balance between feeling and knowing: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re reflected in the brain's intrinsic functional dynamic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vol. 7, no. 6, pp. 727-737, 2011.
DOI: <http://dx.doi.org/10.1093/scan/nsr051>
- [23] Shamay-Tsoory, S. G., Tomer, R., Goldsher, D., Berger, B. D., Aharon-Peretz, J., "Impairment in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patients with brain lesions: anatomical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vol. 26, no. 8, pp. 1113-1127, 2004.
DOI: <https://doi.org/10.1080/13803390490515531>
- [24] Se-hee K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Gf-Gc and Big-Five Factor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2013.
- [25] An-Soon Yu,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ccording to measure methods of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2013.
- [26] Mayer, J. D., Caruso, D. R., Salovey, P.,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case for ability scales", 2000.
- [27] Bar-On, R.,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Multi-health systems, 1997.
- [28] Yoon Sun Kang, "The Influence of the Verse Activity Program on the First Elementar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 [29] Y. L. Moon. "Professor Mun-Yong Lin's lec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Booksnut, Seoul, pp. 203-221, 2011.
- [30] Ae-Ryon Lim,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9, pp. 103-110,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9.103>
- [31] Young-Ran Kim, Moon-Hee Y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Empathy and Client Experiencing Level, and the Immediate Outcome at Each Counseling Stag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1, pp. 19-38, 2002.
- [32] Sun-A 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Big-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ounselors Burnout in :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therapy, 2013.
- [33] Cherniss, C., "Observed supervisory behavior and teacher burnout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vol. 54, no. 5, pp. 449-454, 1988.
DOI: <https://doi.org/10.1177/001440298805400508>
- [34] Krznaric, R.,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Random House, pp. 73-82, 2014.
- [35] Goldberg, L. R.,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no. 1, pp. 7-28, 1999.
- [36]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250601-10>
- [37] Y. J. Jeon, S. B.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Personality Traits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the Deluxe Hotel",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 26, no. 3, pp. 395-412, 2011.
- [38]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 2-19, 1980.
- [39] Ga-Ram Kim,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Wall Paint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Maladjusted Adolescents i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 [40] Da-Hae Kang, "(The)effect of group counseling for school adaptive ability improvement using cinema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ada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41] Hee-Sook Le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using 'Eum parent education on parents' emotional empathetic capac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42] Ju-Young Lim, "Music Program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empathy in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4.

- [43] Bo-Kyeong Ko, "Development of Service Education Program for Empathy Ability Improvement Using Educational Theatre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orporate-Educ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9.
- [44] Byung-Lim Lee, Hyung-Sun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Big-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in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5, no. 3, pp. 293-306, 2014.
- [45] Hwa-Jin Yi, "The Role and Tasks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Learning and Instruction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3, no. 2, pp. 37-54, 1999.

임 애 려(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